

‘대한민국 생태수도 2020’ 마스터플랜 TF 가동

정원박람회 이후 순천 미래 그린다

순천시가 정원박람회 이후 순천의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제시할 청사진 마련에 나섰다.

순천시는 최근해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 2020’ 마스터플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시는 당초 지난 2006년에 만든 중·장기 발전계획인 ‘희망순천 2020’을 매년 보완해 연동화 계획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정원박람회 개최 이후 도시 전체에 대한 큰 그림을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 시의 전략 목표인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 완성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마련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TF팀 47명은 최근 워크숍을 열고 팀별 역할분담과 현황분석을 했다.

향후 전문가와 영역과 시민사회 단체 등과 토론을 통해 연말에 마스터플랜을 확정하고, 2013년초 전 시민들과 공유를 목표로 하고 있다.

마스터플랜에는 ▲순천시의 비전과 전략 ▲분야별 지표설정 및 프로젝트 개발 ▲정원박람회 전후방산업 개발과 함께 순천의 현재와 과거 그리고 미래 등을 담을 예정이다.

또한 시는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 2020’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시 정책과 업무를 단계적으로 추진, 반

영해 중·장기 계획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시스템을 갖출 것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마스터플랜은 적극적인 시민 소통과 참여에 바탕을 두고 정원박람회 이후

희망과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순천을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찾아가는 운전면허 시험 서비스 호응

도로교통공단-순천시 MOU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주상용)은 전남 도서벽지 주민들과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약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운전면허 시험 개선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PC 학과 시험 서비스’를 시행, 호응을 얻고 있다.

공단은 자체 PC학과 시험을 서버 장비가 탑재된 출장시험 버스를 독자적으로 개발, 적극 활용하고 있다.

버스는 수험생용 좌석 6개를 배치했고, 사계절 냉·온풍 및 조명, 에어컨 등을 갖춰 학과시험 수험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배려했다.

공단은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297개 섬 주민들과 9230세대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출장시험 서비스를 제공했다.

전남면허시험장(장장 고재열)은 그동안 나주에 있는 면허시험장까지를 업무를 내지 못했던 순천·여수·광양 등 전남 동부권 지역의 사회적 약자를 위해 지난 31일 순천경찰서와 윈스톱 운전면허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

/동부취재본부=예정열기자 yjj@



■ 새 얼굴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 생명·재산 보호”

박 달 호 여수소방서장



“지역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119를 찾는 모든 지역 주민을 내 가족처럼 생각하고 소방 활동에 임하겠습니다.”

최근 취임한 박달호(51) 여수소방서 서장은 “봉사자라는 사명감을 재인식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신뢰와 사랑받는 여수소방서를 만드는데 각자 맡은바 직

무를 성실히 수행해 줄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신안 출신인 박 서장은 1990년 2월 소방간부 6기로 소방에 입문해 영광소방서 방호과장, 목포소방서 소방과장, 전남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광양소방서장 등을 역임했다.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변산 대명리조트앞 공영주차장 콘도 이용객만 사용 ‘특혜시비’

부안 변산 대명리조트(이하 대명콘도)가 공공용지를 전유물처럼 사용하고 있어 특혜시비가 일고 있다.

3일 부안군 변산면 주민들에 따르면 대명콘도가 변산면 격포리 257번지 일원에 위치한 공영 주차장을 콘도 이용객들만 사용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면적 4400㎡ 규모의 공영 주차장은 898㎡를 제외한 3596㎡가 현재 부안군 소유로 돼있다.

이곳 주차장은 지난 1992년 변산국립공원 지정에 따라 격포 집단시설 지역으로 묶이면서 공영주차장으로서 기능을 상실했다.

이후 주차공간이 부족한 대명콘도에서 전유물처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명콘도는 504실의 객실이 있지만 이용가능한 지하 주차장 등 주차공간이 400여대에 불과해 이용객들을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다. 객실 가동률이 연평균 90%에 육박하면서 공영주차장의 도용 없이는 사실상 영업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

이로 인해 변산반도를 찾는 관광객의 동행 불편함과 인근 100여 개의 지역 상가들의 피해로까지 이어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주민 유모(53)씨는 “지난 3월 죽마 마을의 30여억 원의 숙원사업인 공원을 만든다는 공청회를 통해 1년간만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주민들에게 되돌려주겠다는 약속을 믿었던간 업체 이익을 가져다준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부안군의회 오세준의원은 “현 주차장 면적이면 실거래가로 20여억원이 넘을 것”이라면서 “매각사용 승인허가를 받아 임대료를 내주거나, 매각해 재정이 약한 부안군 세입수입으로 잡아야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부안군 재무과 관계자는 “격포를 중심으로 소유한 해안가 군부지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며 “미래 수요들을 감안, 공공용지 확보를 위해 매각이나 임대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자전거 타고 섬진강 경관 즐긴다

순창군, 2개코스 조성

순창군은 섬진강을 따라 경치를 즐길 ‘섬진강변 자전거길’과 자연경관·농촌풍경·문화유적을 만나는‘섬진강·영산강 자전거길’을 함께 조성했다.

‘섬진강변 자전거길’은 적성면 장군곡에서 풍산면 향가유원지까지 섬진강 물줄기를 따라 총 12km(1시간 거리)를 달리는 길이다. 이곳에는 구송정유원지, 어은정, 화산옹, 책여산 등이 있다.

‘섬진강·영산강 자전거길’은 배꽃

과 복숭아꽃이 장관을 이루는 금과면 일목마을부터 향가유원지까지이다. 강 전선에서 발원한 물이 경천, 삼의당정자, 옥출산 전망대까지 이어진다.

순창군은 “2개코스가 섬진강, 자연풍광, 시골마을, 문화유적을 보며 여유 있게 자전거를 즐길 최적의 길”이라며 “자전거길 인근에 운영 중인 섬진강 마실 휴양숙박단지 오토캠핑 외에 향가유원지 오토캠핑장을 새로 만들어 자전거, 자동차, 도보여행을 함께 즐기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싸게 사고 농가도 돕고”

서울 시민들이 지난 1일 광화문 시민 열린마당에서 열린 ‘농부의 시장’을 찾아 태풍 ‘볼라벤’으로 낙과피해를 입은 장수군 사과를 구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북 태풍피해 500억 육박

벼 백수현상에 사과·배 낙과 피해 커

태풍 ‘볼라벤’과 ‘덴빈’ 등 2개의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전북지역의 피해액이 500억원을 육박했다.

전북재해대책본부에 따르면 3일 오전까지 공공시설 93억7200만원, 사유시설 369억100만원 등 총 462억 6300만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특히 강풍을 동반해 ‘볼라벤’으로 인해 농작물의 피해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벼 3399ha가 침수되거나 쓰러졌고,

2만8200ha는 백수(白穗=벼 이삭마름) 피해를 입었다. 또 사과와 배 등 과수 밭 2046ha에서는 낙과 피해가 발생했다.

김제시의 경우 전체 벼 재배면적(2만1964ha)중 35%가 넘는 7800ha에서 백수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일 백수피해가 발생한 김제시 진봉면을 방문했다. 이날 이진식 시장

은 백수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을 강력히 건의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공공시설과 사유재산의 피해 입력기간이 오는 7일과 10일까지 계속되는 만큼 최종 피해액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지금까지 연인원 2만8700여명과 장비 500여대를 투입, 복구작업을 벌였으며 3일에도 3300여명을 피해 지역에 보내 피해시설물 철거와 낙과 줍기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식물 돌연변이 전문가 과정’ 개설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소장 김영진)와 (사)한국종자연구회는 공동으로 민간 육종가와 직무 육육가 등 20여 명을 대상으로 ‘식물 돌연변이 이용 전문가 과정’을 개

설했다. 외국품종 종자 로열티 지급에 대응하고 수출까지 가능한 고부가가치 신품종 개발에 기여하기 위한 이번 교육은 3일부터 1주일간 연구소 내 국제협력관에서 진행된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섬진강서 래프팅 체험

급류를 헤쳐나가는 레포츠이다.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지난 2일 곡성군 고달면 두가교~오곡면 압록유원지 구간에서 래프팅(Rafting)을 즐기고 있다. 래프팅은 고무보트를 타고 강이나 계곡

/동부취재본부=김계종기자 kjkim@

울포 해수욕장서 전어잡이 추억 만든다

14~16일 보성 전어축제

“전어(錢魚) 굽는 냄새에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 ‘가을 전어에는 깨가 서말’ 등 가을철에 잡은 전어는 특별히 맛이 좋다는 의미의 속담이 많다.

전어의 계절 가을을 맞아 14일부터 16일까지 보성군 회천면 울포 해수욕장과 솔밭해변 일원에서 ‘보성 전어축제’가 열린다.

올해 8회째를 맞는 전어축제는 보성 전어축제 추진위원회(위원장

박태신) 주관으로 열리며, 녹차와 득량만에서 갓 잡아 올린 전어를 테마로 더욱 풍성해진 볼거리와 프로그램으로 관광객들을 유혹할 계획이다.

축제 주요 행사로는 전어잡기 및 전어구이 체험, 전어요리 체험 및 시식회 등 체험 행사와 축하공연, 관광객 어울 마당, 지역특산품 전시 판매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마련된다.

특히 울포 해수욕장에 전어를 풀어놓고 참가자들이 직접 잡은

전어를 즉석에서 회와 구이로 맛볼 수 있는 전어잡기 체험과 전어 요리 시식은 전어축제의 백미로 손꼽힌다.

박태신 전어축제 추진위원장은 “청정 득량만에서 잡히는 보성전어는 고소하고 비린내가 없는데다 약간의 단맛까지 있어 그 맛이 일품”이라며 “보성 전어축제장을 찾아 와서 가을 전어도 맛보고, 가족·연인과 함께 소중한 추억도 만들어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영백기자 kyb@

국립 종자원과 전남과학대는 최근 전남과학대에서 상호 공동발전과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학·관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배원길 종자원장과 조성수 총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종자산업의 발전 및 교육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상호협력 협약은 학생인력의 실습 및 연구에 관한 사항과 지역혁신인력 양성을 위한 사항 및 각종 정부지원사업 등의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등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단 신

전주 전통시장 상인 태풍 이재민돕기

전주 동문상점가 상인회(회장 이종근)와 신광양시장 상인회(회장 반봉현)는 3일 전주시청을 방문, 태풍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뒤 모은 태풍 피해복구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전주시 상인연합회 이종근 회

장(동문상점가)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힘이지만 성금을 모아 전달하게 됐다”면서 “하루 빨리 어려움을 털고 일어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군산시, 불법 생활폐기물 집중 단속

군산시는 9월말까지 군산시 대명동 새벽시장에서 불법 배출되는 생활 폐기물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도·단속한다.

시는 추석 장을 보는 시민들이 청결한 새벽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단속반 2개조를 편성해 쓰레기 불법배출 행위 등

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또 쓰레기의 효율적 관리 및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차량을 이용한 거리 가두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홍보 전단지들을 배포해 쓰레기를 구역봉투에 배출하도록 하는 등 행정 지도를 병행한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남원시 신규 임용 공무원 특별강좌

남원시는 공직자의 친절마인드를 높이고 고객이 감동하는 고품격 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해 3일 신규 임용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아카데미 특별강좌를 실시했다.

이번 특강은 시민들에게 밝고 친절함 인상을 심어 주고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삼성

생명 김정선 강사를 초청, 교육을 진행했다. 김정선 강사는 인간관계 호감도 진단을 통해 공무원 자신의 친절 마인드를 측정하게 한 뒤, 고객을 응대할 때는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공무원이 될 것을 강조했다.

/전북취재본부=백성기자 bs8787@

정읍시 주민세 납부 1개월 연장

정읍시는 태풍 ‘볼라벤’과 ‘덴빈’의 영향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8월 정기 균등분 주민세(개인균등·사업장·법인)의 납부기간을 1개월 연장했다.

정기분 주민세 납부기한 연장은 풍수해·벼락·화재·전정·재해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에 시행할 수 있다. 시는 태풍 피해 납세자에게는 취득세·등 록면허세·자동차세 등을 면제하는 등 피해복구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문의(063-539-5281)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